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긴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긴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8월 3일)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4자 후보 구도 확정

혜총 · 원행 · 정우 · 일면 스님 순으로 기호 배정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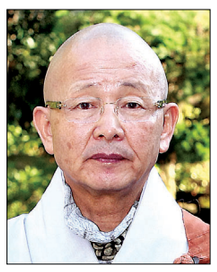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선거에 총 4명의 스님들이 입후보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제36대 총무원장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기호 1번 혜총 스님(前대각회 이사장), 기호 2번 원행 스님(前중앙종회의장), 기호 3번 정우 스님(前통도사 주지), 기호 4번 일면 스님(원로의원) 순으로 정해졌다. 등록 첫날인 4일에는 공식 접수시간인 오전 9시 이전부터 혜총 · 원행 · 정우 스님의 대리인들이 후보자 등록을 위해 선관위 사무처를 방문했다.

후보자 등록 대리인으로는 혜총 스님 측에서 선거본부 직원이, 원행 스님 측에서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이, 정우 스님 측에서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참석했다. 이에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오전 9시 이전 접수자들에 한해 추첨을 실시, 혜총 스님이 기호 1번을 배정받았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일면 스님이 대리인인 동산 스님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서 4자 구도가 만들어졌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이제 조계종은 9월 28일까지 총무원장 선거로 쉼 없이 일정을 소화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9월 11일 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난 다음날인 12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입후보한 네 명의 스님 모두 전 · 현직 요직을 맡은 중진이라는 점에서 자격심사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후보 사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네 스님 모두 완주할지는 미지수다.

총무원장선거에서 직접적인 표를 행사할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각 교구본사에서 치러진다. 교구종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20교구본사 선암사를 제외한 24개 교구별로 본사주지를 포함해 총 10인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여기에 현재 중앙종회의원 78명이 더해져 최대 318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혜총 스님(기호1번)


원행 스님(기호2번)


정우 스님(기호3번)


일면 스님(기호4번)

4~6일 후보자 등록 마무리
각 후보 스님 서류 접수 마쳐
선거인단 선출 13~17일까지
선거 막바지 사퇴 가능성도

후보들은 어떤 인물?

한편 기호 1번 혜총 스님은 1956년 통도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원장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불교 포교사의 산증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덕(人德)을 바탕으로 한 대중과의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기호 2번 원행 스님은 1973년 법주사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 16대 중앙종회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서 행정학 석 · 박사를 취득할 만큼 행정에 밝고, 대사회 관련 직책을 많이 맡아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기호 3번 정우 스님은 1968년 통도사서 홍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9~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부장, 통도사 주지, 3대 군종특별교구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약 20개의 사찰을 일궈낸 도심포교 달인이자 군법당 신축 및 보수, 독서카페 기증 등 군포교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

기호 4번 일면 스님은 1964년과 1967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장, 호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등 종단 내외 주요 소임을 거쳤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자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서 생명나눔운동과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2013년엔 만해대상을 수상했다.



계절도 무상(無常)하여…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도 결국 부처님의 설법 안에 있었다. '無常', 이제 그 뜨거웠던 날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절 마당의 나무도 나무 아래 우리도 잘 견디어왔다. 그 끝은 법문으로 남고 이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한다. 다시 설법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울산대, 국내 최초 '원효학 연구소' 설립

9월 1일 개소 · 활동 시작… 초대 소장 박태원 교수

원효전서 번역사업 토대로
'원효학' 수립에 매진 계획
사전 편찬 · 계보학 등 확대
보편인문학으로 원효학 목표

원효 스님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연구하기 위한 '원효학' 전문 연구소가 울산대에 설립됐다. 한국 대학에서 원효 전문 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대는 "국내 유일의 원효 전문 연구 기관인 '원효학토대연구소'가 설립돼 9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초대 소장으로는 원효 전문가인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일반적으로 연구가 종합돼 하나의 학적 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학(學, Science)'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국 전통사상가 중에는 퇴계나 다산이 이 같은 학적 체계를 구성해 '퇴계학'과 '다산학'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한국불교와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원효 스님은 '원효학'이라고 부를 만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울산대의 '원효학토대연구소' 설립은 원효 연구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연구소 설립의 바탕에는 초대 소장 박태원 교수의 노력이 있어왔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5년동안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사업을 통해 '원효전서 번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효 저술 전체가 제대로 번역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원효학' 수립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원효전서 번역'은 원효 스님의 저서와 문헌을 '해석학적 번역'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번역하는 연구 사업이다. 기존의 현토형 번역이 아닌 연구자들의 해석적 이해를 통한 연구물들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원효학토대연구소의 1차 목표도 이 같은 '원효전서 번역사업'을 원만 회향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효학토대연구소는 △원효전서 영역 △한 · 중 · 일 · 인도 · 티베트 망라한 원효사상 관련자료 집대성 · 전산화 △원효사상 개념사전 편찬 △원효철학과 한국불교철학의 개념계보학 구성 △원효학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학 탐구 등의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대 소장 박태원 교수는 "원효전서 번역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원효학'을 보편인문학으로서 한국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가 원효학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국 사찰불교대학 가을학기 개강 A5 | 정진의 길, 시코쿠-도쿠시마 5개 사찰 A8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개원 13주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이 개원 13주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0월 착공하여 2005년 9월 개원, 그리고 2018년 개원 13주년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의술로 함께한 13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은 진단에서 치료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진료예약) TEL 1577-7000 • 103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www.dumc.or.kr/is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80820-중-84409호